

# 국토부, 12·29 참사 ‘로컬라이저’ 정보공개 단 1건

김문수 “세부 항목 15건 중 14건 비공개”

“정보공개, 재발 방지 대책 위한 출발점”

‘12·29 제주항공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협의회 등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 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 단 1건에 그쳤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

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스템으로 참사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안전 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 이후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 정보는 총 28개 항목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로 제시했다.

이는 내부 검토 자료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

김문수 의원은 “항공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

는 사고 수습 이후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 한다”며 “정보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제도적 문제를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서 열린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李대통령 “중국發 부정선거, 정신 나간 소리”

“협중·협한, 양국에 큰 피해…韓中 동의”

青 “시진핑, 서해구조물 문제 충분 인지”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슨 부정 선거를 중국이 어찌고 저찌고,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감정을 상하게 하면 되겠느냐. 근 거도 없고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증 조장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협중·협한 정서’와 관련해 “협중·협한 정서라는 게 양국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악화하면서 큰 피해를 줬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저와 중국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협중·협한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보완 설명드린다”며 지난 5일(현지 시간)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

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확인 결과,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경주에서나 이번 베이징에서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화를 나눴고 시 주석도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다만 정상 간에는 통상 큰 틀에서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대화가 오가기 때 문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 주석의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현재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서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바, 협의가 잘 이뤄져 진전이 있기 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CYMK